



나란다 축제가 아쉽게 준비한 제 1회 은정 B-boy 댄스경연대회. '은정, 꿈을 나누다'를 주제로 마련된 'B-boy 그랑프리'는 사전 심사를 거친 7개 팀이 참석해 세계 속 한국 비보이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B-boy 댄스 경연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과 이사 스님들.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돼 직접 시연하며 전통문화를 익혔다.

# 꿈 나누는 '나란다 축제' ... B-boy 댄스경연 등 신설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7일 동국대서 흥겨운 한마당

9월 7일 동국대 일대는 흥겨운 축제로 뜨거웠다. B-boy팀의 댄스경연과 다채로워진 전통문화 체험행사, 사관생도들의 교학경연 등으로 구성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제5회 나란다 축제로 참가자 모두가 한바탕 흥겨운 축제를 벌였다.

연과 외국인들을 위한 '도전, 범종을 울려라' 등이 신설돼 눈길을 끌었다. 오전 10시 30분 첫 순서로 진행된 일반부를 위한 '도전범종을 울려라'는 총 69개 팀이 참가해 퀴즈로 세대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이 행사에는 봉은사 청년회, 조계사청년회, 동대부속 여고 평생교육원, 한국불교대관음사, 육군

사관학교 화랑호국사 등 전국 각지 신원단체의 소속 불자들이 탐을 이루어 참가한 것.

이중 육사 화랑호국사는 장병과 사관생도들이 주축으로 이뤄진 20여개 팀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송재훈 상병(22)은 "호국사 지도 법사님을 통해 축제를 알게 되었다. 불교네비게이션 교재를 가지고 3주 정도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준비를 하는 동안은 1등을 목표로 했는데 어렵게도 우수상을 받았다. 내년 7월에 제대하는데 앞으로 계속 도전해 대상을 받고 싶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하운 씨(21, 동국대경·캠 사회복지학과)는 대구의 한국불교 대관음사 칠곡도량 대학생불교회 소속으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씨는 "두 달 동안 도반들과 팀을 만들어 매일 1~2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그 노력의 결실로 대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지도해주신 담양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함께한 도반들도 너무 고맙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한국불교 대관음사 칠곡도량은 5개 팀 중 4개 팀이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2개를 휩쓸며 그 위력을 과시했다.

일반부에 이어 진행된 외국인들을 위한 '도전범종을 울려라'는 올해 최초로 개설돼 눈길을 끌었으나 50명 정원 중 8명만이 참가

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대회에는 불교와 전통문화를 혼합한 문제로 종교와 언어를 넘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교사 미국인 데이비(24) 씨는 "친구의 소개로 이 축제를 알게 되었다.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아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기쁘다. 1주일 정도 예상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며 참가 과정을 전했다.

## B-boy, '크로하츠' 팀 대상 수상 '도전 범종...' 외국인 8팀 첫 도전 일반부 총 69팀...육사 20팀 참가 대관음사 '연꽃사랑' 대상 영예

같은 시각 동국대 중앙당에서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아쉽게 준비한 제 1회 은정 B-boy 댄스경연대회의 막이 올랐다. '은정, 꿈을 나누다'를 주제로 마련된 'B-boy 그랑프리'는 사전 심사를 거친 7개 팀이 참가해 세계 속의 한국 비보이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켈블루 크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참가 팀들은 열정의 무대

를 펼쳤다. 또한 이 자리에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 등이 참여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대회에 참가한 리얼브로 장순호 씨(25)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춤을 추며 B-boy의 꿈을 펼쳐왔다. 그는 "정적으로 보이는 불교에서 이런 행사를 여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참가를 결정했다. 객석에 스님들이 앉아 계시니 색다르기까지 하다. 또한 아외가 아닌 실내에서 조명을 받으며 공연을 하니 춤에도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 다음 대회에도 계속 참가하고 싶다"며 의지를 밝혔다. 로우패밀리 안정운 씨(19)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축제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춤을 시작하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VIP, 유니버설, 리얼브로, 크로하츠 등 네 팀이 본선에 진출해 춤 배틀로 우승팀을 가렸다. 대상은 크로하츠(상금 200)가 최우수상은 리얼브로(상금 100만원)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올해 B-boy 그랑프리 행사를 시작으로 국악 등 전통문화 경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축제는 초등부 도전범종

을 울려라가 이어졌고 동국대 만해광장에는 20개의 전통문화체험 마당 부스가 마련되어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 △대상 이은지(덕두초등학교·부산 보곡사,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박민진(서정초등학교 6·서울 국제선센터, 상금 80만원), 홍승엽(울목초등학교 5·경기 용주사, 상금 80만원) 등이 수여된다. 외국인 부문은 △대상 흥찬라말레시아,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피케로아 몰리나카 트린 루시아(파테말라, 상금 80만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부는 △대상 한국 불교대 칠곡도량 연꽃사랑 양기순·김종형·이하운(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한국 불교대 칠곡청법 1팀 김영철·박혜숙·박진경(상금 100만원), 금류사 4팀 강병주·설경옥·정선우(상금 100만원) 등이 차지했다.

또한 나란다 축제 둘째날인 8일에는 전국 33개 법당에서 2천 200여명의 군장병들이 경시대회를 치렀다. 11일에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관생도 1천여명의 경시대회도 진행됐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환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일반부를 위한 '도전범종을 울려라'는 총 69개 팀이 참가해 퀴즈로 세대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